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 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분석

전 선 영

(서울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의 형성과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 옹호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4년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42명의 사회복지사이며, 조사도구로는 사회복지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전략, 사회복지 교육성과, 사회복지 가치, 자존감,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옹호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정책론, 조사론 및 실습 등의 기본적 방법론을 충실히 하는 것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가치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체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전략

1. 서론

1) 문제제기

그 동안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을 발전시키고 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가치를 개발하고 정교화 해왔다. 취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꾸준한 헌신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정의에 대한 동시적인 관심은 전문직의 귀중한 기본적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Reamer, 2000). 최근 서구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종래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중심적 차원에서 환경 즉, 사회중심적 차원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천의 초점도 종래의 미시적 차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으로부터 사회정의의 가치를 증시하면서 사회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옹호가 강조되고 있다(Specht, 1990; Haynes, 1998; Abramovitz, 1998; Gibelman, 1999; 조휘일, 2003). 사회복지 옹호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파동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실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치적 역할이 신장되면서 옹호 활동은 한층 더 복잡하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Mickelson, 1995). 한국의 사회복지사윤리강령도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과 같은 복지대상과 직접 일하거나 사회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적극 개입한다.'라고 하여 사회복지의 목표가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 변화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불평등 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자(advocate)'나 '행동가(activist)'의 역할보다는 주로 '치료자(therapist)'나 '상담가(counselor)' 등의 역할을 선호하며 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지실천 가치에 대한 영향이 편향적으로 치료나 상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옹호자나 행동가의 역할보다 치료자나 상담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학습되어 온 이유는 한국의 교과과정이 임상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미국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공식적 자원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즉, 새로운 사회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야말로, 한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사회복지 대책이 미흡한 나라일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휘일, 2003). 사회복지사는 특정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집단을 위한 사례관리 차원의 개입에서만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의식적으로는 사회복지 옹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태영(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행동(social action)의 성향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니나 사회행동에 대한 참여경험이 매우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는바, 리서(Reeser, 1986)는 빈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옹호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실천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 가치는 교육에 의하여 형성되는 바, 사회복지 옹호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가치의 어떠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레(Imre, 1982), 스펙트와 코트니(Specht and Courtney, 1994), 크랩트리(Crabtree, 2000) 등은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래디안(Radian, 2000)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받도록 돕는 사회복지 옹호에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복지 교육, 직무에 대한 열정 등과 함께 사회복지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 가치와 사회복지 옹호 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로 정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의 단선적인 관계로 사회복지 옹호를 설명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연구한다면 사회복지 옹호 실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유사 인간 원조 전문직과 차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적 개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보다 많은 자원 확보와 클라이언트의 처우 향상을 지향하는 옹호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문제

이에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이 받은 교육은 그들의 사회복지 가치와 옹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가 그들이 받은 교육과 실천현장에서의 옹호실천을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옹호의 개념과 옹호의 전략

옹호,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개혁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복지직과 결합되어온 용어이다 (Gibelman, 1999). 카민스키와 워스리(Kaminski and Walmsley, 1995)는 옹호야말로 사회복지를 다른 인간 원조 전문직들과 구별해 줄 수 있는 고유의 특징적 행동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으며,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1996)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옹호를 광범위하게 실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의무화하였다.

사회복지 옹호의 정의를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옹호란 '사회정의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직접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Mickelson, 1995). 슈나이더(Schneider, 2001)는 옹호는 대신하여 말하거나 탄원하기, 다른 사람 대표하기, 조치 취하기, 변화를 촉진하기, 권리와 혜택에 접근하기, 동지(partisan)로 일하기, 영향력과 정치적 기술들 과시하기, 사회정의 보장하기, 클라이언트 역량강화하기, 클라이언트 문제에 동일시하기, 법적 기반 사용하기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옹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다른 하나의 용어로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옹호보다 사회행동이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사회행동은 특정 취약집단이나 계층의 복지육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옹호와 사회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옹호와 사회행동은 모두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호 교환적 개념이라는 시각(Burghardt, 1986; Reisch, 1986; Radian, 2000)과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행동이라는 큰 틀 속에 옹호가 하나의 역할로 있다는 위계적 개념(Kutchins and Kutchins, 1978; Schneider, 2001)으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 옹호가 사회행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써 선택되고 일반주의 실천이 일반화되게 하기 위하여 래디안(2000) 등과 같이 두 용어를 상호 교환적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옹호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 개선과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활용하는 전문가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옹호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을 연구한 엽스테인(Epstein, 1968)과 포터(Potter, 1979), 리서(1986) 등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옹호를 둘러싼 엇갈린 시각은 사회행동 및 옹호가 전문가로서 그들에게 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뿐만 아니라 그 범위나 전략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변화를 위한 개입의 전략은 전문성에 입각한 참여 즉, 협의적 전략으로부터 직접행동, 즉 직면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여 왔다(Reeser, 1986). 협의적 전략이란 변화에 대한 합의적 접근으로 통합된 공동체, 동질적인 이익, 사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동의, 사회 내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변화에 대한 반대는 이익의 갈등이 아니라 무지, 잘못된 정보,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상황에서 옹호는 합리성, 교육, 설득, 협력 등의 전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과정에서 옹호자들은 조력자와 촉매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Khinduka and Couhglin, 1975; Reeser, 1986). 이 전략은 과거 인보관 운동의 사회행동 모델로서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 내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전문가 증언, 공무원들과의 사적 접촉 등을 통하여 변화에 대한 협의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한편, 직면 전략은 협의적 전략의 전제나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용된다. 공동체 내의 합의의 결핍은 변화에 대한 반대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협력이나 설득이 성공할 수 없을 때 직접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변화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옹호자는 물리적, 감정적 개입을 통한 대결적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Thursz, 1971; Paull, 1971; Khinduka and

Coughlin, 1975; Reeser, 1986 재인용).

커스트-애쉬만과 헐(Kirst-Ashman and Hull, 2001)은 위험인구집단을 위한 옹호와 사회행동 이론에서 옹호란 ‘대신 표현하기’, ‘투사로 활동하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옹호에는 다양한 전략 및 기술들이 동원될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제너럴리스트 실천가로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설득, 공청회, 표적을 당황하게 하기, 정치적 압력 행사, 미디어 활용, 탄원서 서명 전략 등이 포함된다.

2)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가치와 윤리에 관한 문헌의 대다수는 1970년대 이후에 저술되었다. 이전에도 많은 중요한 출판물들이 있었지만 가치와 윤리에 관한 대부분의 깊이 있고 학술적인 탐구는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Reamer, 2000). 또한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복지 가치 관련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1996년도에 개정된 현행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 핵심가치와 이를 지지하는 윤리적 원칙과 개입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amer, 2000; Crabtree, 2000 재인용). 첫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서비스(service)’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원칙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개입 스타일로는 “전문적 기술의 일부분을 동원하거나 더 큰 지역사회에 환원할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과 가치와 기술을 사용하고, 물질적 보상 없이 전문적 기술을 자발적으로 할애하는 것 등이 ‘서비스’의 가치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 가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의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개입 스타일로는 “주로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 부정의 등에 변화 노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취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집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사회변화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 부정의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며, 이러한 활동들은 억압 및 문화적인 인종차별에 민감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그리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dignity and worth of a person)’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개입 스타일로는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 존경하는 태도, 개인차와 문화적 다양성을 잊지 않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는 보호와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각 개인

을 대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자아결정을 증진시키는데 힘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기회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 그리고 전문직의 윤리적 기준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네 번째 가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은 중추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입 스타일로는 “인간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이해하며 원조과정에서 동반자로서 관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사회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 개혁,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대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성실(integrity)’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은 진심어린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의 개입 스타일은 “윤리강령에 일치된 태도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전문직의 사명, 가치, 윤리 원칙, 윤리 기준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일치하는 태도로 실천해야 하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윤리적 실천을 증진해야 한다.

여섯 번째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competence)’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은 유능하게 실천하고, 전문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입 스타일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전문직의 기본 지식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기한 사회복지의 여섯 가지 가치들은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실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까지 확장되는 서비스와 사회정의로 이어지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차원의 핵심가치는 특히 자기 자신을 옹호할 능력이 부족한 취약 집단과 관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 및 사회정의에 대한 도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크랩트리(2000)는 이들 여섯 가지 핵심가치들 중 능력과 성실은 주로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해석했고, 이에 수반되는 윤리적 원칙들은 개인적인 행동 및 실천과 관련 있다고 보고 이를 ‘개인적 차원의 가치(personal values)’라고 하였다. 가치의 다음 수준은 사회복지사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까지 확장된 가치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interpersonal values)’라고 하였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가치로서 윤리강령 안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은 원조과정 내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특히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관계있다고 하였다. 이 가치의 차원은 자기-결정,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변화 능력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핵심가치의 마지막 차원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societal values)’로서 여기에는 서비스와 사회정의가 해당된다.

사실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핵심 가치는 상호 경계가 불분명한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가치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실(integrity)의 범주에 대해 윤리 강령에서는

사회사업의 사명(mission)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직접 실천하는 데 있어 '성실'이라는 가치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라는 단일 차원으로만 이해할 요소가 아니라 전문직을 이끌고 운용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 기히(Van Gigch, 1991)는 '사회적 체계 자체의 전체 재설계를 위해 현 체계에 최소한의 변화와 개선을 이루는 것이 개입'이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의 체계적 개입과 계획된 변화는 이들 가치의 연속선을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사회복지 가치로 정의하되, 사회복지 가치의 차원을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중간적 성격을 보이는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 즉,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개인의 존엄 및 가치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의 성실성과 능력을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로 서비스와 사회정의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교육 관련 연구에서 사회복지 교육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 교육 관련 변수로 최종학위를 묻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 교육을 학위소지 형태로 파악하는 것과 사회복지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교육이란 사회복지를 전공한 최종학위의 유형[학부전공 학사(BSW)/ 학부 비전공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석사(BA and MSW)/ 학부전공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석사(BSW and MSW)/ 학부전공 특수(행정)대학원 석사(BSW and Adjunct MSW)]과 일반주의 실천을 토대로 전문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성과로서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 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습, 정책, 조사/ 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신치료, 사례관리, 평가 등에서의 실천기술)을 말한다.

(1) 사회복지 학위 유형

프럼킨과 로이드(Frumkin and Lloyd)는 사회복지 교육을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임파워먼트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임파워먼트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임파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학부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을 전문적 실천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연구를 위해 교육시키고 사회복지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적 관심을 담은 서비스 교육과정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한 차원 높은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기초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기초과정의 중복을 피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조사연구와 교수법에 관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Frumkin and Lloyd, 1995).

(2) 사회복지 교육성과

미국의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은 1950년대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가 제안하였으며, 1980년대에 미국사회복지교육위원회(Council on Social Work: CSWE) 교과과정 정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general) 것으로부터 특정한 전문적인(special)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Anderson, 1985; 송성자, 1997). 즉, 사회복지실천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며 실무 또는 특정 상황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교육은 일반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 양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앤더슨(Anderson)은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학부과정은 초보 수준 일반주의 실천가(generalist), 석사과정은 고급의 일반주의 실천가(advanced generalist)를 양성하는 것이 사회복지 교육의 목표라고 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들은 전문 지식과 기술 추구를 전문직의 목적 그 자체로 삼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오히려 사회복지의 원천적 사명과 가까운 사회정의 등의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잇은 채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추구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교과과정 정책 성명(1994)에서는 사회복지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균형 잡힌 가치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즉, 첫째, 생활과업을 성취하거나 스트레스를 경감하거나 완화하도록 또는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도움을 받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기능의 증진·회복·유지·강화에 힘쓴다. 둘째,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능력의 발달을 지지하는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의 계획·발달·수행에 힘쓴다. 셋째, 위기에 처한 집단의 임파워먼트를 포함하여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옹호실천과 사회,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의 목적을 추구한다. 넷째,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검증한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 원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불평등과 억압된 소외 클라이언트를 위해 봉사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위해 해당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사회복지사의 미시적 관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이 사회로부터 인가받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가치 추구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여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와 개인적 차원이 사회복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가치 및 윤리 체계의 보다 강화된 기준과 그 실질적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분화 된 교과과정의 개발, 사회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옹호의 현장 수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제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실천할 때만이, 사회복지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 신장에 앞장서고 공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4) 선행연구 고찰

(1)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의 관계

래디안(2000)은 사회행동과 사회교육간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사회복지 교육의 영향임을 설명하였다. 델크(Delk, 2002)는 전문직간의 옹호 실천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 학위 형태와 사회복지 전문 자격증이 전문직간의 사회복지 옹호의 의미와 태도, 옹호개입, 옹호 역할, 옹호 필요성, 옹호 교육훈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그는 옹호의 영역을 사례옹호(case advocacy)와 계층옹호(class advocacy)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학위 형태와 사례옹호 태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사회복지 학위 형태와 사례옹호 개입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계층옹호에 대한 태도와 계층옹호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학위 형태가 양쪽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태영(2002)의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 결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대졸일수록 대학원 졸업의 사회복지사보다 행동주의적 성향이 높았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학력과 사회행동 전략 선택에 있어 교육수준과 대립적인 전략 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엡스테인(1968)과 리서(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태도와 옹호실천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사회복지 옹호 관련 연구는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내용이나 교육 훈련 방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옹호가 사회복지사의 의무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많지 않다. 사회복지 옹호는 미시와 거시차원의 개입 모두에서 다 가능하다. 그러나 교과내용 중에서도 어떤 점을 강조하여 교육하였느냐에 따라 학생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준비시키고 옹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사 및 석사라는 학위의 유형과 일반주의(generalist) 실천을 토대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교육성과가 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인 전략 활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복지 교육과 가치의 관계

국외의 가치관련 최근 연구 동향은 사회복지가 타 전문직과 구분되는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와 열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은, 전문성의 심화 수준이 높을수록 즉, 교육정도가 높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수준이 낮으며 개인적 차원의 가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pecht and Courtney, 1994; Crabtree, 2000).

임레(1982)는 고급 임상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의 사회복지사 3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실증적 적용에 필요한 지식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에 지나치게 부응한 나머지, 사회복지 고유의 사명은 상대적으로 멀리한 채 기술과 지식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사회복지사들이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불균형적 선호현상에 영향을 끼친 요소중 하나가 대학의 사회복지 교육이라고 언급하면서 현행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의 고유 열정을 희생시키고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부재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 상태로 사회복지가 지속되는 한 현재 형성된 사회복지전문직의 위치마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스펙트와 코트니(1994) 역시 사회복지사들은 개인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실천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사회정의 추구하고 같은 사회복지의 원천적인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공통적 주장은 사회복지가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술과 지식의 함양 및 적용에 편중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고유의 원천적 특성인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와 열정을 간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이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크랩트리(2000)는 ‘전문직 획득과 사회복지 가치 간의 관계 분석’에서 미국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사회복지 가치 적용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또한 최종학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보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의 가치 관련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미원, 1982; 이종미, 1984; 이운정, 1987; 김만지, 1993; 윤기영, 1997; 안문기, 2000; 이현주, 2000; 송진옥, 2001; 최금주, 2001; 류순애, 2002). 쉘(Scheel, 1997)과 크랩트리(2000) 외에도 생크(Shank, 1993)와 안소현(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교육 수준(학위)과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윤리 형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송진옥(2001), 이현주(2000), 최금주(2001)는 교육수준뿐 아니라 윤리 및 가치 교과목 이수가 사회복지 윤리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1994년 미국사회복지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교과과정에서는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영역에 대해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의 내용에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실무에서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가치와 윤리적 모순과 갈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국의 사회복지 가치 관련 연구는 최종학위가 높고 특정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들이 선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사회복지학문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경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sser and Epstein, 1990; Moore and Urwin, 1991; Harbison, 1991; Specht and Courtney, 1994; Scheel, 1997; Haynes 외, 1997; Crabtree, 2000; Ain, 2001; Taylor, 2002). 그러나 이들 연구들 역시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통제의 노력이 부족하

여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측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위의 종류와 일반주의 실천을 토대로 전문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성과로서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사회복지 가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3) 사회복지 가치와 옹호의 관계

로케쉬(Rokeach, 1970)는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의 준비상태이며, 가치는 태도보다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태도의 바탕이 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실천에 있어 행동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는 태도에 앞서 가치가 선행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Sweatt, 1999).

브래스웨이트(Braithwaite, 1994)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 지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태도 및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인적 가치에 비해 사회적 가치는 보수 대 급진이라는 사회적 행동 목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카루자, 제본, 레비노위츠와 브릭맨(Karuzza, Zevon, Rabinowitz, and Brickman, 1982), 맥고번, 뉴만과 코프타(McGovern, Newman, and Kopta, 1986) 등과 마찬가지로 김혜란(Kim, 1993)은 '워커의 지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향성이 그들의 개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로케쉬(Rokeach, 1973)의 가치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다른 정치정당, 정치 지도자, 사회 정책을 옹호하는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로케쉬는 가치가 사회행동에 개입하게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 행동은 그것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가치와 같은 가상 변인으로부터 단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Rokeach, 1973; Schwartz, 1969; Sweatt,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가치 선호와 체계적인 일련의 행동을 관계 짓는 것이 가능하다. 로케쉬는 데모에 가담한 사람들과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우선 가치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데모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문제와 사회정의에 더 공감하는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Sweatt, 1999).

또한 엡스테인(1968)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회복지 목표 설정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리서(1986)는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사회행동 및 옹호에 대한 엇갈린 시각과 가치가 대립 및 합의의 전략을 펼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그들의 사회적 행동 또는 옹호에 대한 태도 및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은 사회행동이나 옹호에 대해 개인이 갖는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은 파악하였으나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갖는 고유의 영향력 파악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기타 사회복지 옹호 및 가치와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는 신뢰도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성, 주관적 경제상태, 근무연수, 자존감, 통제소재

등의 개인특성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성, 경제력, 연령 등의 일반 특성 변인들은 연구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Wilson and Musick, 1997),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와 각각 관련되고 있다(Harbrison, 1991; Scheel, 1997; Crabtree, 2000; Ain, 2001; Taylor, 2002; 오끼다가요코, 1994; 안소현 1999; 강현기, 1999; 이현주, 2000; 송진옥, 2000; 최금주, 2001; Reeser, 1986; Sweatt, 1999; Cruz, 2001; Delk, 2002; 이태영, 2002).

또한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옹호 실천은 전공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크랩트리(2000)도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그들의 실천현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오끼다가요코(1994), 안소현(1999), 송진옥(2001), 이현주(2000)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근무경력, 직위, 기관의 종류, 업무형태를 분석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오끼다가요코는 일본의 사회복지사가 가치갈등을 겪을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조직요소, 자원, 워커의 속성(워커의 지위, 근무연수, 직업에 대한 동기), 임상적 요소(법제도의 적용, 자원의 활용, 의사소통 기술)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리서(1986), 스웨트(Sweatt, 1999), 델크(2002) 등도 사회복지 옹호 관련 연구에서 사회복지사가 소속해서 일하는 기관, 직위, 근무연수 등의 특성이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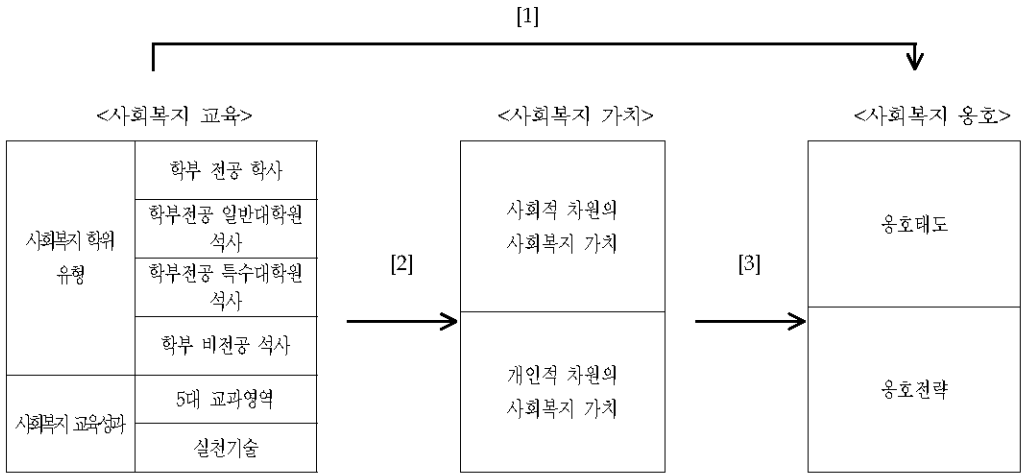
옹호의 목적이 클라이언트를 임파워먼트 하는 것이고(Mickelson, 1995),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이 임파워링하는 사람을 임파워하는 것(Holden, 2002)이기 때문에,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존감(self-esteem)'과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교육이 다양한 사회복지 제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복지 옹호를 실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복지사의 기관 관련 특성, 개인특성 등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개념틀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복지 가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개념틀 <그림 3-1>과 같다.



통제변인: 일반적 특성(성, 연령, 종교, 주관적 경제력, 최종학력 경과년도), 기관관련 특성(직위, 실천현장*, 근무연수), 개인특성(자존감, 통제소재)

<그림 3-1> 개념틀

2) 연구가설

- 가설 1.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사회복지 가치를 통제하면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¹⁾

3) 조사참여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1표본추출 단위는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며, 제2표본추출 단위는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개인이며, 사회복지사가 표본추출의 요소이다. 표본틀

1)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는 회귀식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회귀식 [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충족되면 회귀식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넣고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회귀식 [1]보다 회귀식 [3]에서 줄어들어야 하며, 유의미하지 않게 될 경우 강력한 매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론과 케니의 매개변인 검증법에 의하면 위의 세 가지 가설이 모두 충족된다면, 마지막으로 회귀식 [3]에서 β 가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해 보고 매개변인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보고하는 회원기관 리스트이다.

<표 3-1> 조사대상지의 표집 계획 및 결과

(단위: 명, %)

대상	모집단 (서울, 경인지역)		표집 계획			표집 결과		
			수	계	할당률	수	계	회수율
사회복지사 ²⁾	2,037	종합사회복지관	300	400	20%	174	259	65%
		노인복지관	50			36		
		장애인복지관	50			49		

‘사회복지사의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확률표본추출법의 층화표본추출로 연구의 표본을 구성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종별 규모가 가장 크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연구 영역에 포함시켜 그들의 가치 및 옹호를 함께 조사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표집은 서울시 및 경인지역의 복지관 152곳 가운데 70곳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 기관별로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사의 총 수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설문에 응해줄 의사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수를 파악한 뒤 최소 3부에서 최대 10부의 설문지를 기관에 우편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표집은 종별로 각 6개 기관을 편의 표집하여 각 기관별로 5개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표집은 서울 및 경인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00명,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0명,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037명의 약 1/5인구(20%)에 달하는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사 400부 가운데 259부(65%)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연수원(보건사회연구원 훈련부)을 졸업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설문지 13부와 응답항목 중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한 24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옹호란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사회 개선과 변화를 가까이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옹호를 옹호태도와 옹호전략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옹호태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변화 지향 척도’를, 옹호전략 활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등록상황, 2002.

(1)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지향 태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이 척도는 널(Neal)이 1965년에 개발하고 하비슨(Harbison)이 1991년도에 사용한 적이 있다. 널이 개발한 ‘사회 변화 지향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식 6점 척도로 개발된 이 척도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의 동의의 강도를 말하도록 고안되었다. 널이 개발한 기존 척도의 15개 문항 간 신뢰도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널의 ‘사회변화 지향 척도’ 15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회복지 옹호태도 척도’로 사용하였다(Harbison, 199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옹호태도 척도의 신뢰도 α 는 .65로 나타났다.

(2) 옹호전략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옹호전략 활용 측정을 위해 커스트-애쉬만과 헐(2001)의 옹호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옹호 전략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옹호전략 측정 문항에는 ‘설득 및 직면방법의 사용’, ‘공청회 및 법적 호소의 사용’, ‘변화 표적 당황하게 만들기’, ‘정치적 및 지역사회 압력 사용’, ‘미디어 활용’, ‘탄원서 서명’ 등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개발된 이 척도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많이 활용한다’까지의 활용의 정도를 말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산출하고 요인을 직교회전의 베리맥스(varimax)방식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 요인의 변량비율을 말하는 아이겐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은 한 개로 나타났으며, 그 한 개 요인이 전체자료의 63.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통성(communality)이 모두 0.5~0.8 사이로 나타났다. 이 때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가 .862로 나타났으며, 바르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이 한 성분이었기 때문에 해법을 회전할 필요가 없었으며, 성분행렬에서 나타난 요인부하량의 값은 0.50~0.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개의 요인으로 분류된 6개 문항 모두를 ‘사회복지 옹호전략’이라고 명명하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준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엡스테인(1969)이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행동 전략 척도’와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엡스테인의 ‘사회행동 전략 척도’는 높은 타당도를 갖은 것으로 검증되어 왔으며(Potter, 1979; Reeser, 1986; 이태영, 2000), 본 척도와는 .77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사회복지 가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가치란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 정의한 사회복지 핵심 가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랩트리(2000)가 사용한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크랩트리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사회복지 핵심 가치에 따라 사회복지 가치를 6문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는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 '성실성' 1문항, '능력' 1문항,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로 '인간관계의 중요성' 1문항 '인간의 존엄 및 가치' 1문항,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서비스(사회봉사)' 1문항, '사회정의' 1문항, 총 3개 차원에 각 2개 문항으로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크랩트리의 사회복지 가치척도 6개 문항 가운데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2개 문항을 제외하고, 개인적 차원의 가치 2문항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 2문항 총 4개 문항을 '사회복지 가치 척도'로 사용한다. 여섯 가지 사회복지 가치 가운데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2개 빼고 나머지 4개 가치만 보는 이유는, 이들 가치들이 '대인관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와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치 척도의 1번 문항은 '서비스(사회봉사)'의 가치를, 2번 문항은 '사회정의'의 가치를, 3번 문항은 '능력'의 가치를, 4번 문항은 '성실'의 가치를 말하며, 1-2번 문항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3-4번 문항은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로 구분된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크랩트리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64로 나타났다.

(4) 사회복지 교육성과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교육성과란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일반주의 실천을 토대로 문제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말한다.

이의 측정을 위해 홀든(Holden, 2002) 등이 개발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Social Work Self-efficacy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홀든 등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에렌크란스 사회복지 대학원(Ehrenkrans School of Social Work; ESSW) 학장 5명이 모여 만든 척도로서, 5대 교과영역(실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현장(실습), 정책, 조사)에서 학생들이 일반주의 실천을 위해 획득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기술 척도(Practice Skills Inventory; PSI)(O'Hare and Collins, 1997)로서, 이는 다양한 실천 기술의 적용 빈도를 사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오히레와 콜린스는 세 가지 주요 영역-정신치료, 사례관리, 평가에서 실천 기술 척도를 위한 개념을 개발했다. 홀든 등은 반두라(Bandura)의 지침을 따라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1-19번 문항은 에렌크란스 사회복지 대학원 교수진의 연구를 토대로, 20-52번 문항은 실천기술척도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그 중 20-35번 문항은 치료기법에 관한 질문들이고, 36-42번 문항은 사례관리에 관한 질문, 43-48번 문항은 지지에 관한 질문, 49-52번 문항은 치료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저자들은 프랜스(Frans, 1993)의 사회복지 임파워먼트 척도(Social work Empowerment scale; SWE)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기준타당도를 확보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에렌크란스 사회복지대학원(ESSW)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하위 척도의 신뢰도 α 는 .93이었으며, 실천기술 척도(PSI)를 토대로 구성한 하위척도의 신뢰도 α 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홀든 등이 개발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는 각 항목이 100점 기준에 몇 점에 해당하는지 기록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홀든 등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 52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되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응답하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5)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로젠버그-거트만(Rosenberg-Guttman) 척도를 번역한 전영실(1990)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는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92의 거트만 척도 재생산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성체타당도가 입증된 척도이다.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존감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의 채점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영실의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문항이 측정되었으며, 그의 연구에서 신뢰도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10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α 는 .68로 나타났다.

(6) 통제소재

통제소재는 폴허스와 셀스트(Paulhus and Selst, 1990)의 「통제소재 척도」 제3판을 번역하여 사용한 정해주(1998)의 설문을 활용한다. 통제소재 변인은 개인의 자율적 자기통제와 대인통제로 나누어 측정되는데, 원 척도는 자기통제 5문항, 대인통제 4문항, 총 9문항의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자기통제의 신뢰도 α 는 .77, 대인통제의 신뢰도 α 는 .66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 중 11-15번 문항은 자기통제에 관한 질문이며, 16-19번 문항은 대인통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소재 9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통제소재 척도의 신뢰도 α 는 .82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조사참여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자가 개발한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기준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위한 사전검증으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검증과 톨러런스(Tolerance)와 분산확대지수(VIF)를 검사함으로써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의 회귀분석 조합을 통한 매개변인 분석법을 따랐다.

4. 연구결과

1) 조사참여자의 특성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참여자 수는 242명이며, 남자가 80명(33.1%) 여자가 162명(66.9%) 이었다.³⁾ 조사참여자의 연령은 22세에서 63세 사이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0.1(S.D. 5.8)세였으며, 그 중 20대가 14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3%였다. 조사참여자 중 195명(80.6%)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 가운데에는 기독교가 전체의 125명(51.7%)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상’ 또는 ‘중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0명(66.1%), ‘하’ 또는 ‘중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82명(33.9%)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1/3 가량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은 학부 전공 학사가 165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는 28명(11.6%)이었고, 학부 전공 특수(행정)대학원 석사는 32명(13.2%)이었으며, 학부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17명(7.0%)이었다.

조사참여자의 근무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근무지는 사회복지관이 163명(67.4%), 노인복지관 35명(14.5%), 장애인 복지관 44명(18.2%)이었다. 또한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139명(57.4%)이 평사회복지사였으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103명(42.6%)이었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년도는 최하 1개월에서 최고 19년까지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 참여자의 평균 근무년도는 4.2년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경과년도는 평균 4.3년으로 나타났으며, 졸업한지 3년 미만의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4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성	여자	162	66.9	종교	없음	47	19.4
	남자	80	33.1		있음	195	80.6
	계	242	100.0		계	242	100.0
연령	20대	146	60.3	주관적 경제 상태	중 이하	82	33.9
	30대	81	33.5		중상 이상	160	66.1
	40대 이상	15	6.2		계	242	100.0
	계	242	100.0				
최 종 학	학부 전공 학사	165	68.2	직위	평사회복지사	139	57.4
	일반대학원	28	11.6		간 책임 사회복지사	81	33.5

3) 2002년 말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남녀 비율은 남자 17,884명(26.8%), 여자 51,439(74.2%)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2.88배 많다(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록사항, 2002).

학 위	부 전 공 석 사	석사			부	(주임, 선임, 대리, 과장, 팀장)		
		특수대학원 석사	32	13.2		부장	21	8.7
	학부 비전공 석사	17	7.0	관장		1	.4	
	계	242	100.0	계		242	100.0	
근 무 지	최 종 학 위 경 과 년 도	사회복지관	163	67.4	3년 미만	84	37.0	
		노인복지관	35	14.5	3년 이상-6년 미만	81	35.7	
		장애인복지관	44	18.2	6년 이상-9년 미만	37	16.3	
		계	242	100.0	9년 이상	25	11.0	
		계	242	100.0	계	227	100.0	

2) 가설검증 결과 및 논의

(1)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태도 및 전략 활용) 간의 관계

사회복지 교육변인(학위유형과 교육성과)들 가운데 옹호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특정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전공교육이 옹호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전공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지식과 기술습득을 중심으로 한 직접교육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결과로 보여진다. 사회복지의 사회변화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며 사회변화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큰 사회 변화와 개입을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 설정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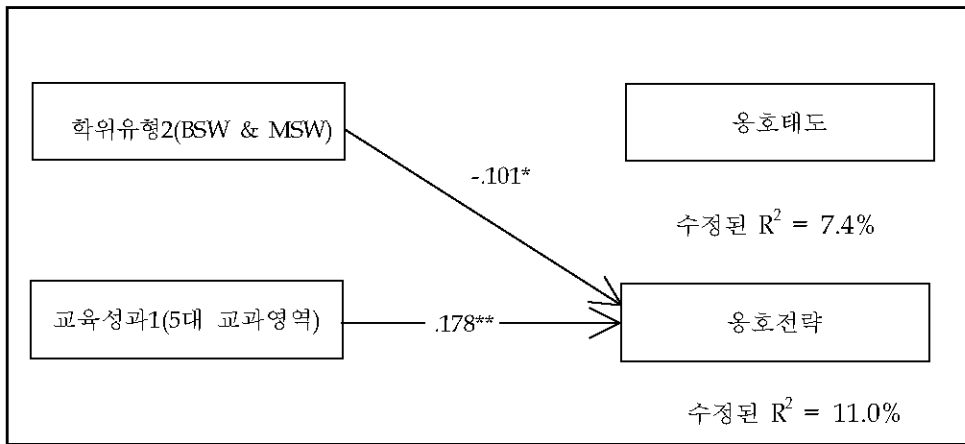
반면, 사회복지 교육이 옹호전략 활용을 설명하는 정도는 11.0%($p < .0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교육성과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 = .178, p < .05$), 학위유형2(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 취득: BSW and MSW)($\beta = -.101, p < .05$), 성($\beta = .124, p < .01$), 통계소개($\beta = .126, p < .05$)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볼 때, 사회복지사가 옹호전략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복지 교육 요소는 실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습, 정책, 조사라는 사회복지 5대 영역으로서 옹호전략 활용에 있어 사회복지 기본영역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부 전공을 하고 일반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사회복지사일수록 옹호전략 활용과는 마이너스 방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beta = -.101$)는 결과는 학위유형이 낮을수록 계층옹호에 개입한다는 델크(2002)의 결과와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대졸일수록 대학원 졸업의 사회복지사보다 사회행동 성향이 높다는 이태영(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옹호를 실천하는데 있어 대학원 교육과 학부 교육이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요인은 대학원과 같은 전문교육으로 갈수록 옹호보다는 개인 대상의 미시적 실천에 집

중된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옹호실천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미치는 영향

(N=242, * $p < .05$, ** $p < .01$, *** $p < .001$)

구 분		옹호태도		옹호전략 활용	
		Beta	t	Beta	t
상수			13.778***		.954
학위 유형 (기준: 학부전공 학사-BSW)	학부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BSW & MSW)	-.031	-.613	-.101	-1.952*
	학부 전공 특수대학원 석사(BSW & Adjunct MSW)	-.057	-1.099	-.028	-.550
	학부 비전공 석사(BA & MSW or Adjunct MSW)	-.004	-.087	-.002	-.033
교육성과	교육성과1(5대 기본 교과영역)	.022	.304	.178	2.492*
	교육성과2(실천기술)	.047	.635	.084	1.177
통제변인	성(기준: 남자1, 여자0)	-.005	-.112	.124	2.616**
	경제력(기준: 중상이상1, 하 이하0)	-.118	-2.521*	-.053	-1.157
	근무연수	.075	1.448	.037	.732
	자존감	-.104	-1.947*	-.038	-.724
	통제소재	.272	4.612***	.126	2.172*
R ²		.095		.130	
adjusted R ²		.074		.110	
F		4.572***		6.475***	



* $p < .05$, ** $p < .001$

<그림 4-1>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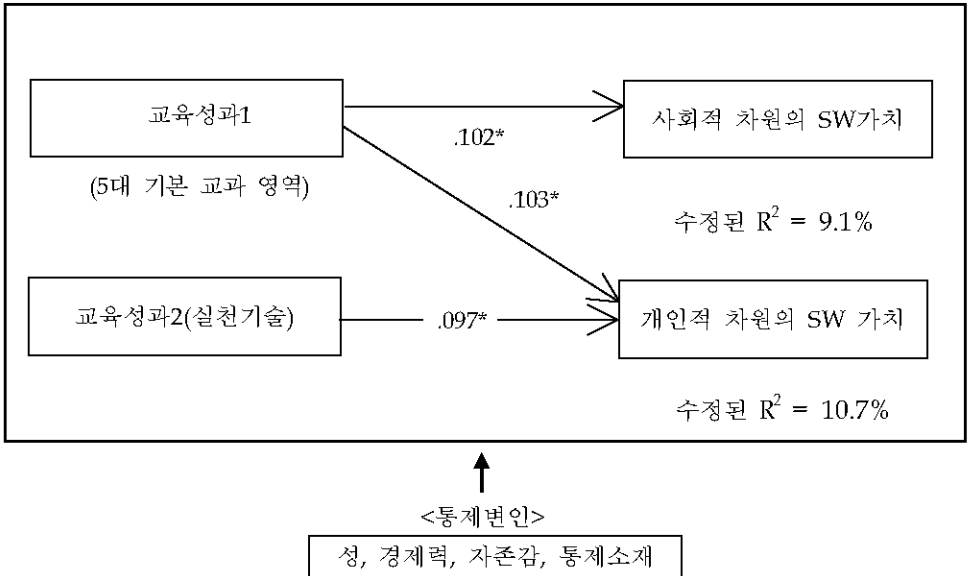
(2)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간의 관계

먼저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설명하는 정도는 9.1%($p < .001$)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은 교육성파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 = .102, p < .05$), 통제소재($\beta = .171, p < .01$), 성($\beta = -.104, p < .05$)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이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설명하는 정도는 10.7%($p < .001$)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은 교육성파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 = .103, p < .05$), 교육성파2(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 = .097, p < .05$), 성($\beta = -.106, p < .005$), 통제소재($\beta = .151, p < .05$), 자존감($\beta = .120, p < .05$)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가치에 있어 5대 기본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형성 모두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N=242, * $p < .05$, ** $p < .01$, *** $p < .001$)

구 분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Beta	t	Beta	t
상수			10.500***		11.590***
학위 유형 (기준: 학부전공 학사-BSW)	학부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BSW & MSW)	.007	.143	.022	.446
	학부 전공 특수대학원 석사(BSW & Adjunct MSW)	.043	.830	-.029	-.560
	학부 비전공 석사(BA & MSW or Adjunct MSW)	.032	.673	.036	.776
교육성파	교육성파1(5대 기본 교과영역)	.102	1.898*	.103	1.987*
	교육성파2(실천기술)	.069	1.413	.097	1.843*
통제변인	성(기준: 남자1, 여자0)	.043	.875	-.106	-2.217*
	경제력(기준: 중상이상1, 하 이하0)	-.104	-2.197*	-.046	-.999
	근무연수	.097	1.867	.093	1.819
	자존감	-.007	-.135	.120	2.276*
	통제소재	.171	2.871**	.151	2.598*
R ²		.112		.128	
adjusted R ²		.091		.107	
F		5.723***		6.357***	



* $p < .05$

<그림 4-2>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의 관계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교육이 기본 교과영역과 실천기술과 관련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현재의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 형성에 더 초점을 둔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진 가치함양보다는 양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직의 시작 시기부터 사회복지직에게 기대되고 있던 사회정의와 사회변화 추구 등의 원천적인 가치 등을 생각해 볼 때,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함양은 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즉, 교육연한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떠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얼마만큼 확보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위의 수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과교육을 실시할 때 5대 기본 교과영역에 대한 철저한 강조와 각 실천기술에 대한 유능감을 확보하게 하는 교육성과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 가치 함양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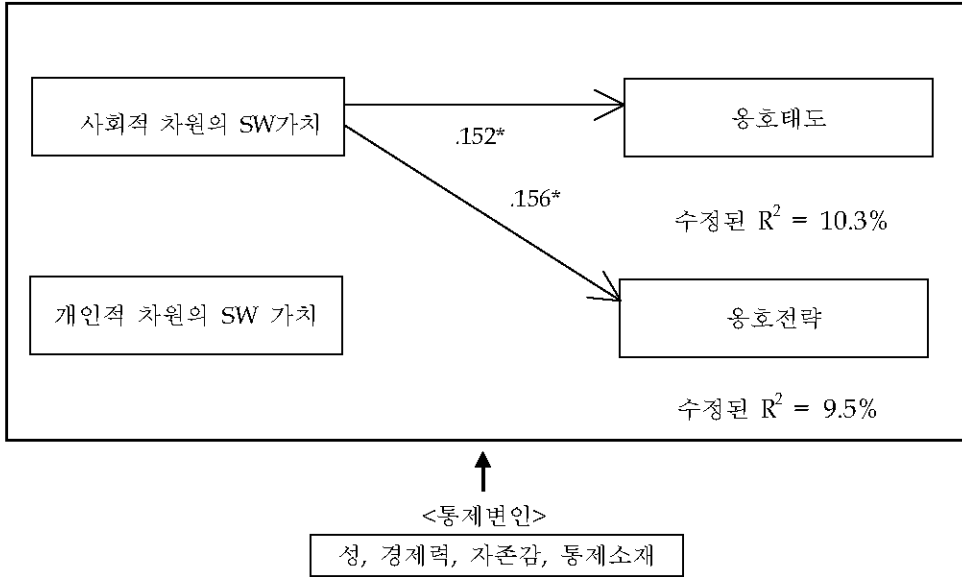
(3) 사회복지 가치와 사회복지 옹호 간의 관계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10.3%($p < .001$)로 나타났으며, 옹호전략 활용을 설명하는 정도는 9.5%($p < .001$)로 나타났다.

<표 4-4>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에 미치는 영향

(N=242, * $p < .05$, ** $p < .01$, *** $p < .001$)

구 분		옹호태도		옹호전략 활용	
		Beta	t	Beta	t
상수			10.979***		.913
사회복지 가치	사회적 차원	.152	3.021**	.156	3.091**
	개인적 차원	.040	.779	.009	.176
통제변인	성(기준: 남자1, 여자0)	.000	-.005	.144	3.031**
	경제력(기준: 중상이상1, 하 이하0)	-.102	-2.206*	-.040	-.870
	근무연수	.031	.658	.010	.211
	자존감	-.107	-2.021*	-.022	-.417
	통제소재	.261	4.901***	.207	3.854***
R ²		.117		.109	
adjusted R ²		.103		.095	
F		8.323***		7.683***	



* $p < .05$

<그림 4-3> 사회복지 가치와 사회복지 옹호의 관계

사회복지 옹호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beta=.152, p < .01$), 경제력 ($\beta=-.102, p < .05$), 자존감($\beta=-.107, p < .05$), 통제소재($\beta=.261,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호 전략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beta=.156, p < .01$), 성($\beta=.144, p < .01$), 통제소재($\beta=.207, p < .001$)로 나타났다. 즉, 옹호태도 형성 및 옹호전략 활용에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사회복지 옹호태도를 형성하고 옹호 전략을 활용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형성이 중요한 사회복지 가치이므로 사회복지 옹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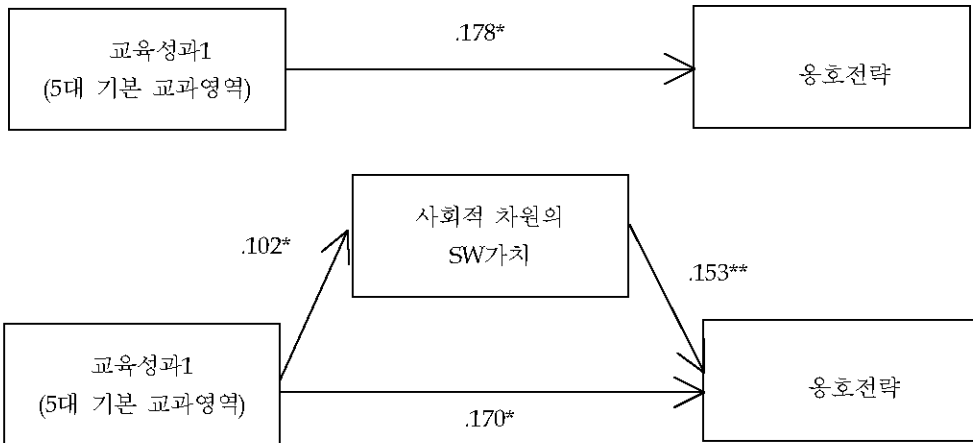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는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충족되면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회귀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면 매개모델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였다. 완전매개 효과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부분매개 효과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매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번째 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매개 관계가 성립하면 β 값 비교는 불필요해진다(Baron and Kenny, 1986).

<표 4-2>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제1 회귀식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태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옹호전략만을 설명했으며, <표 4-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 가치를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설명하였던 독립변인은 ‘교육성과1(5대 기본 교과영역)’과 ‘교육성과2(실천기법)’ 변인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교육성과’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변인으로, ‘사회복지 옹호전략 활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4-5>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전략 활용에 있어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효과

(N=242, * $p < .05$, ** $p < .01$, *** $p < .001$)

구 분		옹호전략 활용			
		1단계		2단계	
		Beta	t	Beta	t
상수			.954		-479
학위 유형 (기준: 학부전공 학사-BSW)	학부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BSW & MSW)	-.101	-1.952*	-.097	-1.898*
	학부 전공 특수대학원 석사(BSW & Adjunct MSW)	-.028	-.550	-.035	-.692
교육성과	학부 비전공 석사(BA & MSW or Adjunct MSW)	-.002	-.033	-.006	-.131
	교육성과1(5대 기본 교과영역)	.178	2.492*	.170	2.396*
사회복지 가치	교육성과2(실천기술)	.084	1.177	.082	1.154
	사회적 차원			.153	3.060**
통제변인	개인적 차원			-.011	-.213
	성(남자1, 여자0)	.124	2.616**	.117	2.455*
	경제력(중상이상1, 하 이하0)	-.053	-1.157	-.038	-.827
	근무연수	.037	.732	.023	.461
	자존감	-.038	-.724	-.036	-.680
	통제소재	.126	2.172*	.101	1.746
R ²		.130		.150	
adjusted R ²		.110		.126	
R ² change		.130		.020	
F		6.475***		6.363***	



* $p < .05$, ** $p < .01$

<그림 4-4> 사회복지 교육성과1과 옹호전략 활용에서 사회적 차원의 SW가치의 매개효과

<표 4-6>은 사회복지 교육성과1(5대 기본 교과영역)이 사회복지 옹호전략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차원의 SW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비록 사회적 차원의 SW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효과가 교육성과1이 옹호전략 활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실천을 직·간접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는 5

대 기본 교과영역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성과를 높여 자기효능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SW가치를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한 총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6>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직접 및 간접효과

구 분	5대 기본 교과영역이 옹호전략 활용에 미치는 영향
직접 효과	0.283
간접 효과	0.015
인과적 효과	0.298

3) 함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역할을 처음으로 확인해 함으로써 사회복지 가치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고,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연구의 이론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하여 사회복지 교육이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의 실천의 토대가 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정책론, 조사론 및 실습 등 사회복지 5대 기본 교과과목이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학문과 실천의 전제가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자원과 기회를 증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옹호 전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①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균형 잡힌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교과과정에서 강조하고 두 가치를 각 교과목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옹호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를 윤리강령에서 보다 분명히 밝히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가치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한국에서는 옹호에 관한 실천과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의 외국문헌 참고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옹호에 관한 연구가 시작단계이며, 옹호실천에 관한 교육 및 현장의 상황이 미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안해볼 때 참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옹호실천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교육의 문제인지, 실천현장의 문제인지 등을 연구하는 양적·질적·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이 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변인들을 탐구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제한된 문항으로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측정해 내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을 측정할 척도의 성격상, 사회복지 옹호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만지. 1993. "사회사업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원. 1982. "사회사업의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순애. 2002.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과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 1997. "미국사회복지 교과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논문집 40(1): 215-243.
- 송진욱. 2001.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직업윤리와 가치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문기. 2000. "사회사업 전문직과 한국주요전문직의 윤리강령 비교연구: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현. 1999. "퇴원과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인식과 태도연구." 신라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끼다가요코. 1994. "일본 복지사무소의 위커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기영. 1997. "한국 사회사업 전문직의 윤리체계에 관한 연구: 윤리강령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정. 1987.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의 실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미. 1984. "한국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윤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 2002.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도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62-94.
- 이현주. 2000.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실. 1990. "직업조건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주. 1998.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휘일. 2003a. "지역사회 취약계층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활동 전략". 서울여자대학교 제 9회 실습지도자간담회 자료집.
- _____. 2003b. "제너럴리스트 실천적용 활성화 방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세미나 자료집.
- 최금주. 2001.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ovitz, M. 1998. "Social Work and Social Reform: An Arena of Struggle." *Social Work* 43(6): 512-526.
- Ain, E. J. 2001. *Ethical Dilemmas of New York City Social Workers*. DSW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 Anderson, J. 1985. "BSW Programs and the Continuum in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 63-72.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aithwaite, V. A. 1994. "Beyond Rokeach's Equality-freedom Model: Two-dimensional Values in a One-dimensional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67-94.
- Burghardt, S. 1986. "Marxist Theory in Social Work." pp. 590-617. in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3rd Ed.), edited by F. Turner. New York: The Free Press.
- Crabtree, C. R. 2000. *Who We Really A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Attainment and Social Work Value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Deik, M. A. 2002. *Study of the Differences in and Practice of Advocacy among Clinical Social Workers,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and Mental Health Counselo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Epstein, I. 1968. "Social Workers and Social Action: Attitudes toward Social Action Strategies." *Social Work* 13(2): 101-108.
- Frans, D. J. 1993. "A Scale for Measuring Social Worker Empowerment."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3: 312-328.
- Frumkin, M., and G. A. Lloyd. 1995. "Social Work Education." in Beebe (Ed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Press.
- Gibelman, M. 1999. "The Search for Identity: Defining Social Work-Past, Present, Future." *Social Work* 44(4): 298-310.
- Harbison, J. R. 1991. *Value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s of Those Pursuing an MSW Degree: Does the BSW Make a Dif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Haynes, K. S. 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43(6): 501-509.
- Haynes, K. S., and J. S. Mickelson. 1997. "Influence through Organizing Others." in *Affecting Change: Social Workers in the Political Arena* (3d Ed.). New York: Longman.
- Holden, G. et al. 2002. "Outcomes of Social Work Education: The Case for Social Work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8(1): 115-133.
- Imre, R. W. 1982. *Knowing and Caring*.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Kaminski, L., and C. Walmsley. 1995. The Advocacy Brief: A Guide for Social Workers. *The Social Worker* 63: 53-58.
- Karuza, J., M. A. Zevon, V. C. Rabinowitz, and P. Brickman. 1982.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by Helpers and Recipients." pp. 107-130. in *Basic Processes in Helping Relationships*, edited by T. A. Wills. New York: Academic Press.
- Khinduka, S. K., and Coughlin, B. J. 1975. "A Conceptualization of Social Action." *Social Service Review* 49: 1-14.

- Kirst-Ashman, K. K., and Hull, Jr., G. H. 2001. *Generalist Practice wit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Brooks/Cole.
- Kutchins, H., and S. Kutchins. 1978. "Advocacy and Social Work." in *Social Scientists as Advocates: Views from the Applied Disciplines*, edited by G. Weber and G. McCall. Beverly Hills, CA: Sage.
- McGovern, M. P., F. L. Newman, and S. M. Kopta. 1986. "Metatheoretical Assumptions and Psychotherapy Orientation: Clinical Attributions of Patients' Problem Causality and Responsibility for Treatment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76-481.
- Mickelson, J. S. 1995 "Advocacy."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edited by Beebe. NASW Press.
- Moore, L., and C. Urwin. 1991. "Gate-keeping: A model for Screening Baccalaureate Students for Field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7(1): 8-17.
- O'Hare, T., and P. Collins.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ocial Work Practice Skill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7: 228-238.
- Paull, J. E. 1971. "Social Action for a Different Decade." *Social Service Review* 45: 30-36.
- Potter, S. J. 1979. *Social Workers, Social Activism, and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Ph.D. Dissertatio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 Radian, E. 2000. *Social Action and Social Work Education in Canad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gary.
- Reamer, F. G. 2000. *Social Work Values & Eth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eser, L. C. 1986. *Professionalization and Social Activism*. Ph.D. Dissertation, Bryn Mawr College.
- Reeser, L. C., and I. Epstein. 1990. *Professionalization and Activism in Social Work: the Sixties, the Eighties, and the Fu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isch, M. 1986. "From Cause to Case and Back Again : The Reemergence of Advocacy in Social Work."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9: 20-24.
- Rokeach, M. J. 1970.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_____.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cheel, J. L. 1997. *Personal and Values of Private and Agency Social Workers*. DSW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 Schneider, R. L., and Lester, L. 2001. *Social Work Advocacy: A New Framework for Action*. Brooks/Cole.
- Schwartz, W. 1969. "Private Troubles and Public Issues: One Social Work Job or Two?" pp. 34-38. in *Social Welfare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nk, B. W. 1993.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ist Practice Framework and Job Tasks Performed by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pecht, H. 1990. "Social Work and the Popular Psychotherapies." *Social Service Review* 345-357.
- Specht, H., and M. E. Courtney. 1994. *Unfaithful Angels: How Social Worker Has Abandoned Its Mission*. New York: Free Press/Macmillan.
- Sweatt, L. I. 1999. *An Exploration of Psychologists' Social and Professional Advocacy Attitudes and*

Involvement. Ph.D.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Chicago.

Taylor, M. F. 2002. *Professional Dissonance among social Workers: The Collision Between Values and Job Tasks in Mental Health Practice*. Ph.D. Dissertat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Thursz, D. 1971. "Social Action."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II**, 16th issue), edited by R. Morris (Ed.-in-Chief). New York: NASW.

Van Gigch, J. P. 1991. *System Design Modeling and Metamodeling*. New York: Plenum.

A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Work Education and Advo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 Values

Jeon, Sun-Young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social workers' level of social work values and advocacy(attitudes and strategies) and to verify the relations among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advocacy and social work values by examining whether social work education influences social work advocacy and social work values, and whether social work values affect social work advocacy. Further, this study wishes to confirm not only the direct effect that social work education has on social work advocacy, but also how social work education indirectly influences social work advocacy through social work values as a mediator.

The research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42 social workers who have obtained social worker licenses and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community centers. As survey tools, this study utilized social work advocacy attitudes, social work advocacy strategies, outcomes of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values,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PC+ 12.0 for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hypothesi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the testing mediation of Baron & Kenny (1986)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ocial work values intervene between social work education and social work advocacy.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confirm that social work values on the social level serve as a mediator variable.

Key words: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values, social work advocacy attitudes, social work advocacy strategies.

[접수일 2005. 6. 1. 게재확정일 2005. 8. 4.]